

르브론 제임스 “아직 할 게 남았다”



▲ ESPY 어워드 시상식 '최고의 기록 경신' 부문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 사진=AP/연합뉴스

2022-2023시즌을 마치면서 코트를 떠날 가능성을 언급한 미국프로농구(NBA)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가 은퇴설을 일축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임스는 전날 열린 2023 엑셀런스 스포츠 대상(Excellence in Sports Performance Yearly Award·이하 ESPY 어워드) 시상식에서 "코트에서 모든 걸 쏟을 수 없을 때가 (선수 경력) 끝나는 날 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게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임스는 서부 콘퍼런스 결승에서 덴버 너기츠에 4연패 해 시리즈 탈락이 확정된 지난 5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농구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스포츠 매체 ESPN이 "그만둘 수도 있냐"고 묻자 제임스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이라 여러 매체들은 그의 '은퇴설'을 보도했다.

이날 LA의 돌비 극장에 열린 ESPY 시상식 '최고의 기록 경신' (Best Record-Breaking Performance) 부문에서 수상한 제임스는 문제의 발언을 꺼낸 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게 아닌지 물어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점을 더 올리든지, 코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아직은 무언가 할 게 남은 것 같다.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서 MLB 정규리그 개막전 열린다

내년 서울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공식 경기가 열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MLB 사무국은 전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한국 시간 2024년 3월 20~21일 서울에서 정규리그 개막전 2연전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MLB 사무국은 서울시리즈 개최 장소를 밝히지 않았지만, 3월 하순의 추운 날씨를 고려해 한국 유일의 돐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돐을 개최지로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MLB 사무국은 '야구의 세계화'를 기치로 MLB 선수 노조와 합의로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정규리그를 진행하는 월드 투어를 추진해왔다.



▲ 2024년 MLB 정규리그 공식 개막전 서울시리즈 홍보 이미지. 사진=MLB

MLB 공식 개막전이 미국 밖에서 열리는 건 1999년 멕시코 몬테레이, 2000년·2004년·2008년·2012년·2019년 일본 도쿄, 2001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2014년 호주 시드니에 이어 내년 서울이 9번째다. 아울러 서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MLB 공식 개막전을 개최하는 도시가 된다.

특히 다저스는 시드니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 2014년 이래 두 번째이자 10년 만에 미국 국경 밖에서 시즌을 출발한다.

1999년 콜로라도 로키스와 몬테레이에서 MLB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바깥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 샌디에이고는 올해 멕시코 시리즈에 이어 2년 연속 월드 투어에 참여한다.

'US 오픈 챔피언' 코퍼즈 "어머니는 한국인"

US 여자오픈에서 7년만에 미국 국적의 챔피언이 된 엘리슨 코퍼즈가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인임을 밝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코퍼즈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골프링크스(파72·6,50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US 여자오픈(총상금 1,10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3언더파를 추가,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로 정상에 올랐다.

2021년 프로로 전향한 뒤 지난해 LPGA투어에 데뷔한 코퍼즈는 이전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일구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그는 우승 기자회견에서 성장 배경에 대한 질문에 "어



▲ 부모님과 함께 US여자오픈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념하는 엘리슨 코퍼즈(가운데). 사진=AP/연합뉴스

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는 필리핀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장엔 아버지 마르코스 코퍼즈, 어머니 베이 코퍼즈 등 부모님이 함께 기쁨을 나눴다. 코퍼즈는 "부모님 앞에서 우승해 더욱 특별하며, 우승 장소가 역사적인 페블비치라는 점도 놀랍다."고 말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 출신인 코퍼즈는 미셸 위 웨스트(미국)를 꺾고 '롤모델'로 꼽았다. 위 웨스트는 2014년 US 여자오픈을

포함해 LPGA투어에서 통산 5승을 기록했고 이번 대회 첫 탈락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쳤다.

위 웨스트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하와이 출신인 등 코퍼즈와 성장 환경이 비슷하다.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푸나호우 스쿨)를 졸업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